

# 韓國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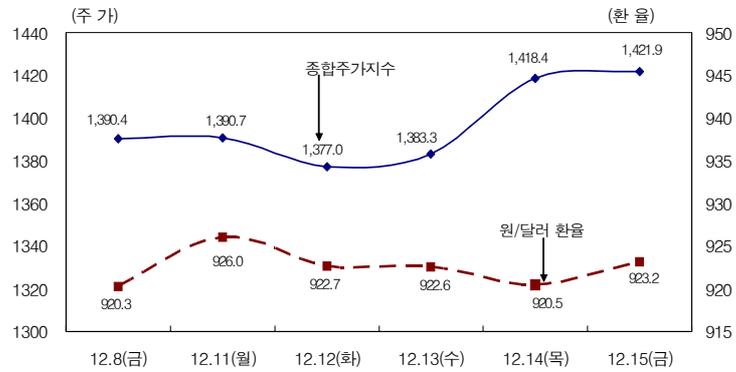


■ 한국경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나?

- 일본 모방형 경제로부터의 탈피 전략 -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08~12.15)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한국경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나? - 일본 모방형 경제로부터의 탈피 전략	1
주간 경제 동향	10
□ 실물 부문 : 고용시장 개선 미흡	10
□ 금융 부문 : 환율 하락세가 다소 안정되면서 주가 급등	1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지식 산업팀 : 이 부 형 연구위원 (3669-4011, lbh@hri.co.kr)

## Executive Summary

### □ 한국경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나?

#### - 일본 모방형 경제로부터의 탈피 전략 -

한국은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과의 경제 격차를 줄여오지 못했다. 다만 1996년부터 일본과 경제 규모 면에서만이라도 한국경제는 격차를 점차 축소시켜와 이것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줄 수 있으나, 이는 일본의 버블붕괴와 그에 따르는 장기침체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2년 1월에 장기 경기 침체에서 벗어난 일본경제는 2006년 11월에 이자나기경기의 회복세(1965년 11월~1970년 7월, 57개월간)를 넘어 사상 최장의 경기호황 국면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경제는 일본과 달리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 활력을 얻지 못하고 있어 한일 간 경제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기술, 노동 생산성, 투자,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 경제·사회 인프라 등에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일간 경제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그동안 **일본 모방형 기술전략으로 한국의 기술력 향상이 미흡하다.** 한국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1981~2004년 말 현재 누적 315억 달러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기술무역수지 흑자는 동 515.4억 달러에 달한다. **둘째, 정치·사회의 불안이 지속되고 상생의 노사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노동생산성 향상도 미약하다.** 2005년 한국의 투입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3.1달러인데 반해 일본은 43달러이다. **셋째, 부품·소재에 대한 투자와 국산화가 미흡하여 산업기반이 부실하다.** 그 결과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의 對日 종속이 심화되어 對日 부품·소재분야 무역수지적자는 2005년 161억 달러로 전체 對日 무역수지적자의 65.9%에 이른다. **넷째, 세계 경쟁 환경 대응이 일본보다 취약하다.** 한국의 세계 1등 상품 수는 2004년에 59개로 일본의 291개의 20.3%에 불과하다. 더욱이 한국은 경제, 사회, 문화 인프라가 일본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다. **IMD가 매년 발표하는 정부효율성, 비즈니스 생산성, 경쟁 인프라 3부문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최근 양국 간 격차가 역전되었다.** 정부효율성 부문(재정, 중앙은행 및 정부기구 등 국가기구의 효율성, 개방도, 경쟁 및 규제 정책 등)은 일본은 2005년 40위에서 2006년 31위로 개선된 반면 한국은 31위에서 47위로 하락하였다. 비즈니스 생산성(각종 생산성 지표, 노동시장 환경, 세계화와 사회적 가치 추구 등 기업의 태도와 가치 관련 지표 등) 또한 일본은 2005년 35위에서 2006년 23위로 개선되었으나, 한국은 2005년 30위에서 15단계 후퇴한 45위에 불과하였다. **넷째, 경쟁 인프라 부문(에너지, 도로 등 기초인프라, IT 투자 등 기술인프라, R&D투자 등 과학인프라, 각종 교육지표 등)은 2006년 일본은 2위, 한국은 24위로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경제·사회 여건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과거 산업시대의 일본 모방형 성장전략으로부터의 탈피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산업의 일본 모방형 성장전략에서 탈피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21세기 지식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선진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우선 일본 따라잡기 성장전략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본 모방형 기술전략에서 벗어나 IT, BT 등 신산업 부문 기술을 선점하는 신기술 혁신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일본과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이루는 '코피티션(Copetition)'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단일 통화 논의와 유사한 '韓日이나 韓日中이 참여하는 '동북아 신기술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과거 자격 취득과 반복학습 위주의 일본식 교육시스템에서 완전 탈피하여 21세기 지식시대에 맞는 창의혁신교육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21세기 지식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창조적 인적자본을 확충하는 등의 선진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마련이 필요하다.

< 일본 모방형 경제로부터의 탈피 전략 >

**한일 격차 재확대**

- 한국은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경제 격차를 축소시키지 못함
- 특히, 일본이 지난 10여 년간의 장기침체에서 벗어남에 따라 그 동안 경제 격차 면에서의 격차 축소 현상마저도 다시 소멸되어 더욱 확대될 전망

한일 양국간 경제 격차 원인	기술력 향상 미흡 → 일본기업 경쟁력회복	- 한국과 일본의 기술무역수지 격차 확대 · 한국은 '81~'04년까지 누적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315억 달러 · 일본은 동 기술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515.4억 달러에 이룸
	노사 관계 불안정 기업 투자 저조 → 노동생산성 향상 미약	- 국내 노사관계 불안정 등으로 인해 노동생산성 개선 미흡 · '05년 한국의 투입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3.1달러, 동 일본은 43달러
	산업기반기술의 對日 경쟁력 개선 미약 → 산업기반기술 취약:	- 이는 부품·소재 등의 산업기반기술의 對日 경쟁력 개선 미약 · 한국의 對日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05까지 지속 확대 → '70년 대비 42배 증가 · 한국의 對日 부품·소재무역수지적자도 지속 증가 → '05년 161억 달러, 전체 65.9%
	세계 경쟁환경 대응부족 → 세계 1등 상품 수 급감	- 세계 경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세계 1등 상품 수 감소 · 한국의 세계 1등 상품 수의 변화는 '98년에서 '04년 사이 32.2% 감소한 반면 일본은 동 11.3%에 그침
	경쟁시스템 약화 → IMD 국가경쟁력 순위 역전	- 정부 효율성: 재정, 중앙은행 및 정부 등 국가 기구의 효율성, 개방도, 경쟁 및 규제, 노동 관련 법제도, 정의, 안전, 분배 등 · '06년 일본 31위 한국 47위 - 비즈니스 생산성: 각종 생산성 지표, 임금 등 노동시장환경, 금융 및 자본시장 효율성, 세계화와 사회적 가치 지표 등 · '06년 일본 23위 한국 45위 - 경쟁 인프라: 인구·에너지·도로 등 기초인프라, IT투자·이동통신 비용·첨단기술 수출 등 기술인프라, 각종 R&D 투자 등 과학 인프라, 평균기대수명·이산화탄소 배출량, 교육 지표 등 · '06년 일본 2위 한국 24위 → 일본의 압도적 우위 지속

성장 중심 경쟁력 제고  
전략 추진

**대응 방안**

- 일본 따라하기 성장전략으로부터의 탈피
  - √ 일본 모방형 기술전략에서 벗어나 IT, BT 등 신기술 혁신전략 추진
  - √ 일본과의 경쟁과 협력의 동시에 추구하는 코피티션(Copetition) 추구
  - √ 일본식 교육시스템으로부터의 완전 탈피, 21세기 지식시대에 맞는 창의혁신교육시스템 구축
- 21세기 지식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선진화 전략 추진
  - √ 시장 경제 확립
  - √ 성장잠재력 확충
  - √ 창조적 인적자본 육성
  - √ 국민적 합의를 통한 비전 실천

□ 한국경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나?

- 일본 모방형 경제로부터의 탈피 전략 -

1. 일본, 경제 회복의 가속화

○ 최근 일본 경제의 회복이 가시화 되면서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과 일본과의 격차가 오히려 더욱 심해질 가능성조차 대두되고 있음

- 일본 경제 회복 가속화 : 최근 일본 경제가 사상 최대의 팽창기에 돌입하는 등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음

· 2002년 1월에 경기저점을 통과한 일본경제는 2006년 5월에 1986년에 시작하여 51개월 동안 지속된 버블경기를 능가, 11월에는 2차 대전 이후 최장 경기 확장기였던 이자나기경기를 뛰어넘었음

< 표1. 과거 일본의 경기회복 비교 >

구 분	이자나기경기	버블경기	현재의 경기회복
기간	1965년10월~1970년 7월(57개월)	1986년 11월~1991년 2월(51개월)	2002년 1월~
시대적 배경	구주 catch up	무역마찰, 엔고	노동인구감소
장기회복요인	- 무역수지 흑자화로 국제수지 확대 - 3C(자동차, 에어컨, 컬러TV)등 소비 확대	- 자산효과에 의한 소비의 확대 - 저금리 지속으로 부동산투자 증가	- 미국 경기회복, 중국 등 아시아의 발전으로 외수 호조 - 과잉문제해소, 기업수익개선으로 설비투자 확대 - 성공적인 구조개혁
회복개시시의 상황	동경올림픽 후의 증권 불황	플라자합의 후의 엔고 불황	버블경기 붕괴 후 잃어버린 10년
후퇴 요인	경기과열에 대한 금융긴축	주가 및 지가의 버블붕괴	?

자료: 니ッセ이基礎研究所, ‘いざなぎ越えた後の景気~2006・2007年經濟見通し’, Weeklyエコノミスト・レター, 2006年 11月 17号.

주: 현재의 장기회복 요인은 가필·수정함.

- 한일 격차 확대 가능성 고조: 한편 일본 경기회복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며 오히려 일본과의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 일본은 성장세 약간 둔화 : 일본정부를 포함 11개 기관들의 2006년 일본 GDP성장률 전망 평균은 약 2.4%이며, 2007년(9개 기관)에는 2%로 성장세는 약간 둔화될 전망이다

· 일본보다 빠른 한국의 성장세 둔화 : 한국 주요 3개 기관의 2006년 GDP 성장률 전망 평균은 5%인데 반해, 2007년에는 4.3%로 0.7%p 하락할 전망으로, 일본과의 GDP 성장률 격차가 축소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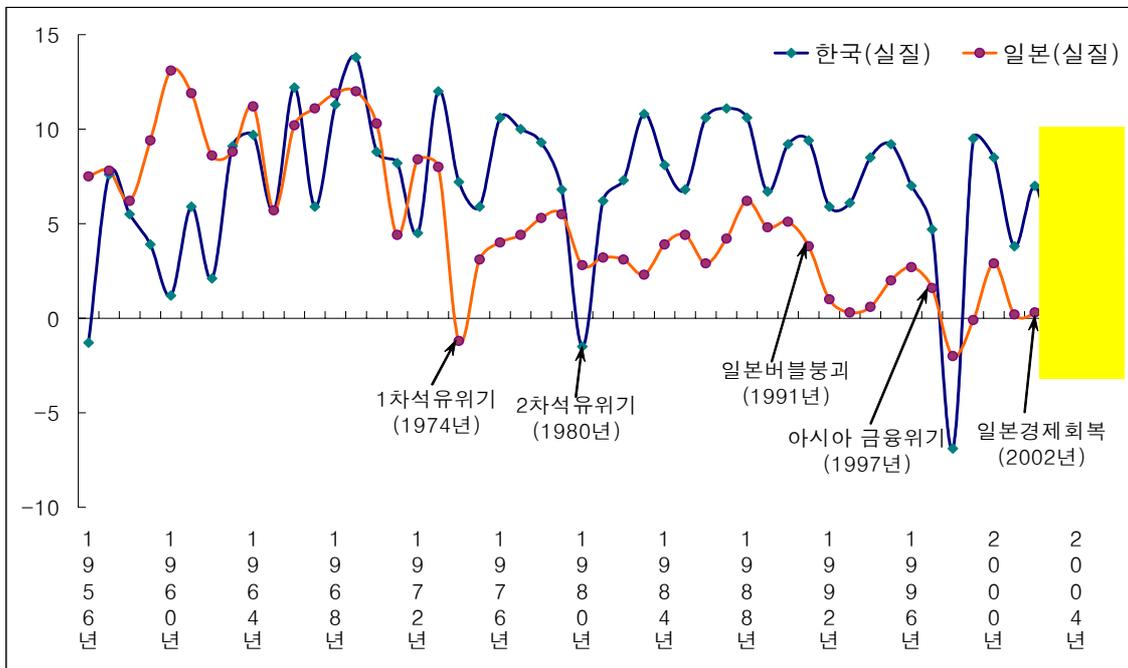
< 표2. 일본 각 기관의 GDP성장률 전망 >

구 분	2006년	2007년	전 망 일 자
일본 정부 전망	2.1%	-	2006년 7월 7일
닛세이기초연구소	2.3%	1.7%	2006년 11월 17일
미츠비시종합연구소	2.5%	2.0%	2006년 11월 16일
미츠비시·UFJ 리서치&컨설팅	2.2%	2.0%	2006년 11월 20일
다이와종합연구소	2.2%	2.0%	2006년 11월 16일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2.4%	2.1%	2006년 11월 17일
미즈호종합연구소	2.3%	1.7%	2006년 11월 16일
일본종합연구소	2.3%	2.5%	2006년 11월 15일
미츠이정보개발주식회사	2.4%	-	2006년 6월 2일
미츠이 트러스트·홀딩스	2.6%	2.1%	2006년 5월 24일
신코종합연구소	2.8%	2.1%	2006년 6월 13일

자료: 内閣府; 각 기관 홈페이지.

< 그림1. 한국과 일본의 GDP성장률 추이 >

(단위: %)



자료: 한국은행; 内閣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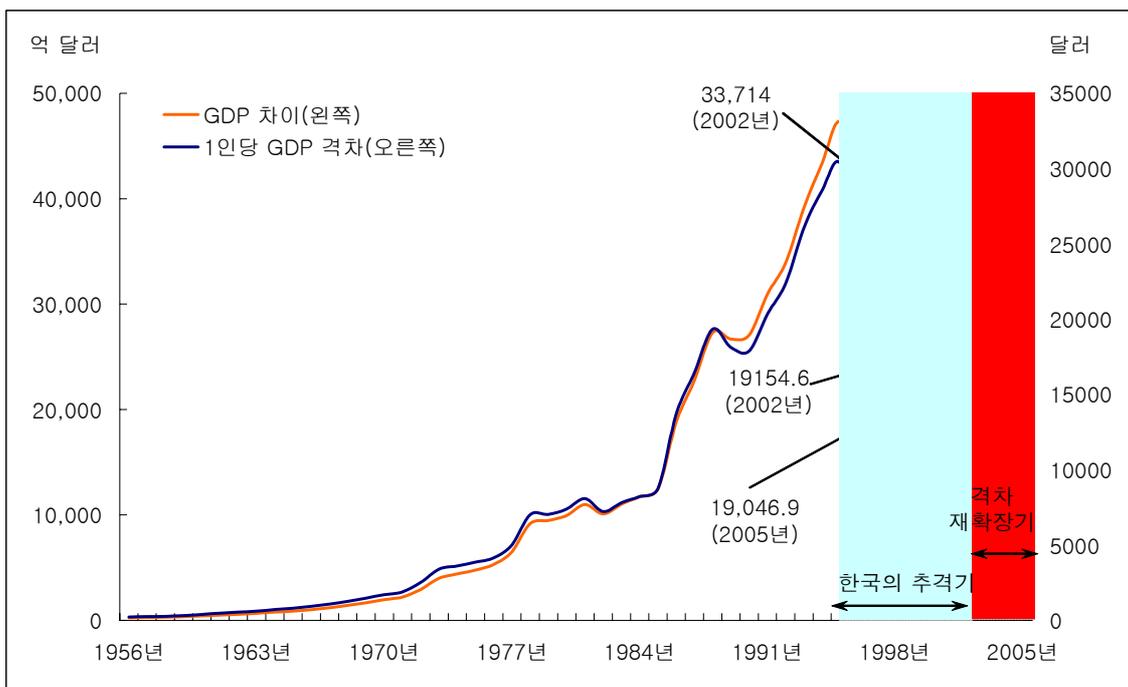
1) 본고에서 사용한 한국 주요 3개 기관 경제전망은 2006년 2007년 각각 한국은행의 5.0%, 4.4%, KDI의 5.0%, 4.3%, 한국금융연구원의 4.9%, 4.2%에 근거함. 한국은행 조사국, '2007년 경제전망', 2006년 12월; KDI, 『KDI 경제전망 2006년 3/4』, 2006년 10월 17일; 한국금융연구원, '2007년 경제전망', 제16회 금융동향세미나, 2006년 10월 26일.

2. 한일 경제 규모 격차 확대

○ (경제 규모 격차) 한일 양국은 양국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던 1995년 이후 GDP 및 1인당 GDP 격차를 상당히 줄여왔으나, 이는 일본의 버블 붕괴에 따르는 장기침체의 영향으로 최근 일본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GDP 격차 재악화** : 한일 간 GDP 격차는 가장 심했던 1995년(4조 7,303억 달러) 이후 2002년에 3조 3,714억 달러까지 축소되었으나, 일본의 경제회복과 더불어 2003년부터 다시 격차가 확대되어 2005년에는 3조 7,616억 달러로 2002년 수준보다 오히려 악화됨
- **1인당 GDP 격차 재확대 가능성 고조** : 한일 간 1인당 GDP 격차는 가장 심했던 1995년(3만 330.4달러) 이후 2005년에는 1만 9,046.9달러까지 축소되었으나, 일본경제의 회복이 지속된다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실제로 2003년(2만 297.3달러)과 2004년(2만 1,714.6달러)은 2005년보다 격차가 심했으며, 2005의 격차 수준은 1990년대 이후 최저였던 2002년의 1만 9,154.9달러와 유사한 수준임

< 그림2. 한국과 일본의 명목 GDP 격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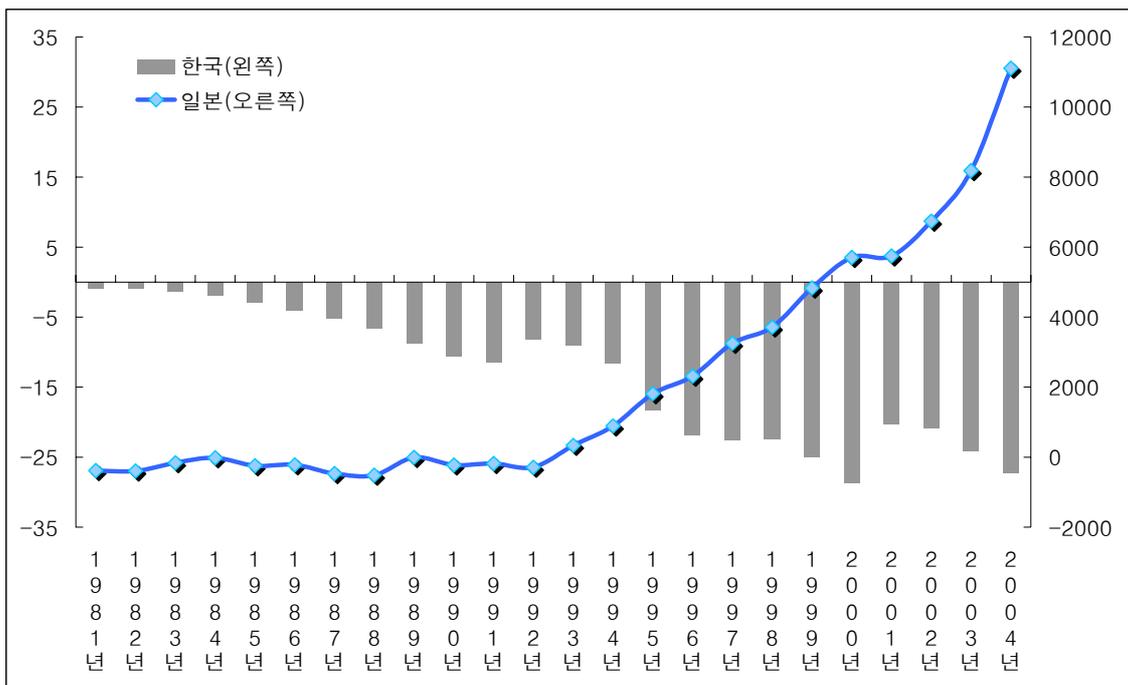
자료: IMF; 한국은행; 内閣府.

### 3. 한일 경제 규모 격차 현상의 원인

- (기술력 미흡) 한국은 과거 일본 모방형 기술전략을 통해 성장을 구가함으로써 기술력 향상이 미흡, 일본과 기술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압도적인 일본의 기술력 : 한국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1981~2004년 말 현재 누적 315억 달러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동기간 기술무역수지는 흑자로 누적 515.4억 달러에 달함
- (노동생산성 격차 심화) 양국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격차가 축소된 시기는 거의 대부분이 일본의 노동생산성 하락 때문이었음
  - 1995년 29.3달러로 과거 최대였던 양국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2000년에 29.5달러, 2005년에 29.9달러로 각각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한일 간 기술무역수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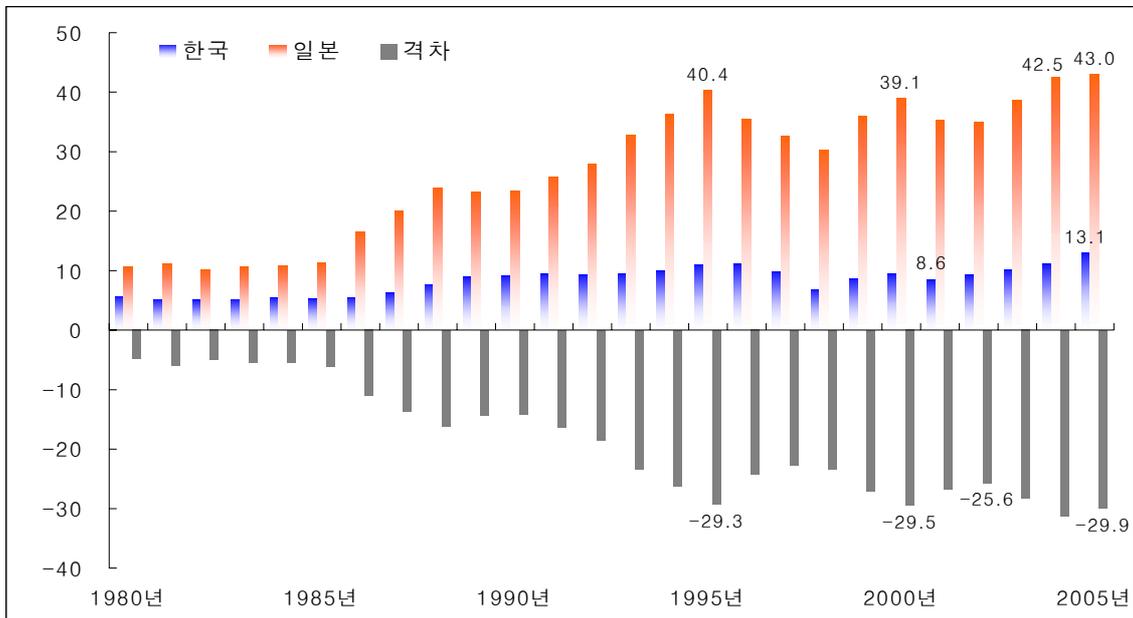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각 년도; 総務省.

< 한일 간 노동생산성 격차 추이 >

(단위: 달러)



자료: OECD

주: 노동생산성=GDP/노동 1시간 투입

○ (산업기반기술 취약) 한국은 2004년 과거 최대의 對日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양국 간 무역 경쟁력 또한 일본과 상당한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그 원인은 부품·소재 등 산업기반기술의 격차 때문임

- 한국의 對日 무역수지적자는 IMF 위기로 인해 한때 큰 폭으로 축소되었으나, 2004년에는 244.4억 달러로 과거 최대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에는 233.8억 달러로 다소 축소는 되었지만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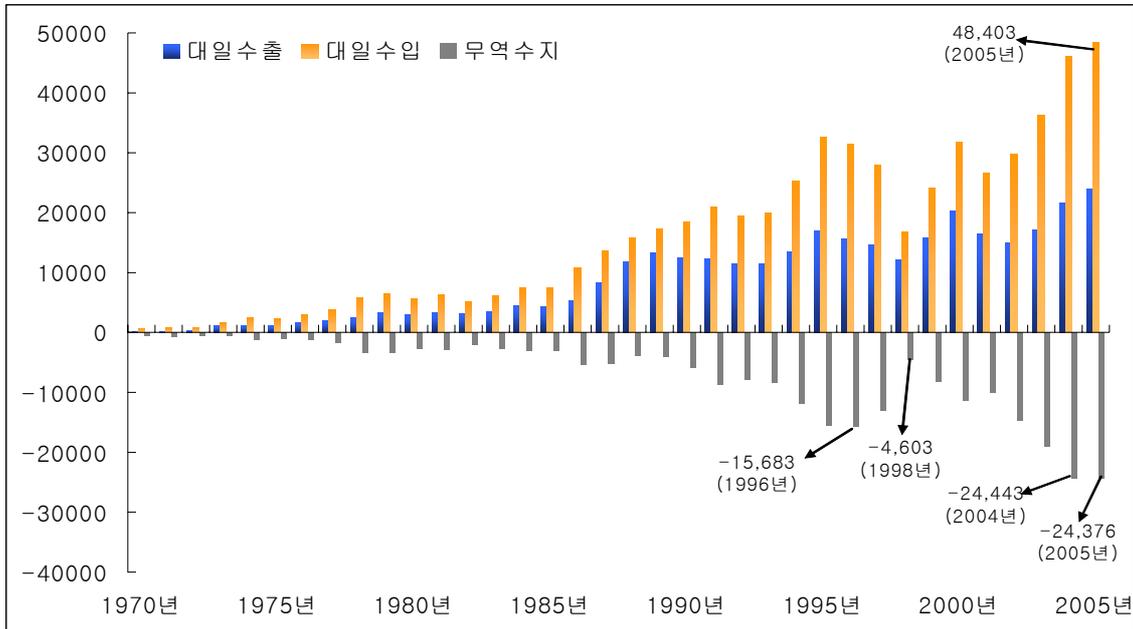
- 양국간 관계에 한정한다면 대체적으로 한국의 對日 수출이 증가할수록 對日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음에 더 큰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한국의 對日 부품소재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2005년 161억 달러, 전체 對日 무역수지적자의 65.9%)<sup>2)</sup>하는 등 산업기반기술의 격차 때문임

2) 산업자원부, 2006년 8월 9일 보도자료.

< 對日 무역역조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 (경쟁 환경 변화 대응 능력) 한국의 세계 1등 상품 수는 1999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격차 축소는 일본의 세계 1등 상품 수 급감에 의한 것으로 양국 간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존재함

- 일본의 세계 1등 상품 수는 2000년 388개에서 2004년 291개로 11.3% 감소하였으나, 한국은 1991년 97개 이후 2004년에는 59개로 32.2%나 감소함
- 한국과 일본의 세계 1등 상품 수 격차는 2000년 301개에서 2004년 232개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일본의 세계 1등 상품 수의 급감에 의한 것임
- 더욱이 이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과의 경쟁 심화나 상품개발력 경쟁 등에서 아직도 일본보다 열위에 있기 때문임

< 한국과 일본의 세계 1등 상품 수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한국(A)	87	91	87	72	77	62	59
일본(B)	328	372	388	340	321	293	291
A-B	-241	-281	-301	-268	-244	-231	-232

자료: 한국무역협회.

- (경쟁시스템 약화) IMD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과 일본은 경제 실적, 정부 효율성, 비즈니스 효율성, 경쟁 인프라 등 4개 부문에 있어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거나 2006년에 일본이 역전함
- 경제 실적 : 한국은 2002년 33위에서 2006년 41위로 하락한 반면, 일본은 2002년 28위에서 2006년 15위로 개선, 양국 간 차이가 확대됨
  - 정부 효율성 : 한국은 2002년 26위까지 개선되었으나 2006년 47위로 다시 급격히 악화된 반면, 일본은 2002년 35위에서 2005년 31위로 약간의 개선을 보이면서 한국의 순위를 역전함
  - 비즈니스 생산성 : 한국은 2005년 30위에서 2006년 45위로 급락한 반면, 일본은 2005년 35위에서 23위로 개선
    - 비즈니스 효율성에는 각종 생산성, 지표, 임금이나 숙련노동자 비중 등 노동시장 환경,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 효율성,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경영 지표, 글로벌화 의지나 경제 및 사회의 개혁 요구 등 세계화와 사회적 가치 지표를 통해 산출됨
  - 경제·사회 인프라 : 한국은 2005년 23위에서 2006년 24위로 1계단 하락한 반면, 일본은 동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견지하고 있음

< 한국과 일본의 부문별 IMD 국가경쟁력 순위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경제 실적	한국	32	40	49	43	41
	일본	28	28	17	21	15
정부 효율성	한국	26	37	36	31	47
	일본	35	39	37	40	31
비즈니스 효율성	한국	27	45	29	30	45
	일본	37	41	37	35	23
경쟁 인프라	한국	23	30	27	23	24
	일본	6	3	2	3	2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 Book*, 각 년도.

#### 4.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일본 모방형 성장전략으로부터의 탈피) 한국경제가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일본 모방형 성장전략에서의 탈피와 21세기 지식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선진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과거 산업시대의 일본 모방형 성장전략으로부터의 탈피가 시급함
  
- (일본 따라가기 성장전략으로부터의 탈피) 한국경제가 일본 모방형 성장전략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혁신전략과 코피티션(Copetition)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일본식 교육시스템에서 완전 탈피함과 동시에 21세기 지식시대에 맞는 창의혁신교육시스템의 확립이 중요함
  
- 신기술 혁신전략 추진 : IT, BT 등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신기술 혁신전략의 추진이 필요함
  - 각종 전략의 연계 강화 : 이를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전략과 경제성장전략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임
  - 정부 부처간 횡단적 정책 수립 필요 : 또 현재 각 정부간 흩어져 있는 위원회, 연구회 등을 분야별로 주무 부처를 선정하여 통합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부 부처간 횡단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전략기술 집중 육성 : IT, BT 등 신산업 분야의 리딩 신기술 선점을 위한 전략기술 집중 육성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정부 부처간의 횡단적인 정책에 바탕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코피티션 전략 추진 : 일본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코피티션(Copetition)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세계적 경쟁 심화 :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술패권을 재패하는 자가 세계를 재패하는 시대로 변화됨에 따라 국가간·지역간·기업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동북아시아의 주요국인 한중일의 기술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음

- **범세계적 문제의 확산** : 한편 환경, 테러 등 범세계적인 문제가 각국 또는 각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일국의 기술수준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
  - **동북아 신기술 공동체 구성 필요** : 따라서, 한중일이 중심이 되어 이러한 범세계적인 문제 뿐 아니라 범지역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에도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임
- **일본 교육시스템으로부터의 완전 탈피** : 과거 자격 취득과 반복 학습 중심의 일본식 교육시스템 하에서는 창조적 인적자본을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산학연 연계시스템 강화 등의 전략 추진이 필요함
- **대학 자율성의 보장** : 입시, 연구, 교육 등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대학의 창조적인 지식의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창조적 인재가 다양한 분야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산학연 연계시스템의 강화** : 교육, 연구 등에서 산학연 연계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적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원 신분제에 대한 규제 완화, 각종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산출물에 대한 활용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할 것임
- (선진화 전략 추진) 21세기 지식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창조적 인적자본을 확충하는 등의 선진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함
-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 필요** :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본보다 훨씬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확립과 기업규제 완화, 우수 외국인 투자자 유치 등의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시장경제의 확립** : 자유, 민주, 정의를 바탕으로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경제를 확립함으로써 경제선진화의 발판을 마련해야 함

- 성장잠재력 향상 : 기업규제 완화 및 노사관계 안정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 과열된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 유도, 성장 중심의 정부재정운영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우수 외국인 투자자 유치 : 한편, 기업도시 활성화 등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수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통해 자본 뿐 아니라 기술, 경영 노하우 등을 체화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수요 중심의 창조적 인적자본 확충 시급 : 글로벌화, 지식사회의 도래 등으로 기업 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의 핵심인 창조적 인재 확보를 위한 기업 간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음
- 한국은 교육에 경쟁 원리의 도입,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산학연 연계 시스템 구축에 의해 수요 중심의 창조적 인적자본의 확충이 시급함
- 국민적 공감대 마련을 통한 비전 실천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VISION 2030'에서 제시된 국가 중장기 발전 비전 추진 전략에 대해 조속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합의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전략이나 경제성장전략, 선진화 전략 등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 對국민 공감대 마련 : 정부는 각 부문별 국가 중장기 발전 비전 및 사회 구조 변화 대응 방안이 제시된 'VISION 2030'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對국민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함
  - 비전과 부문별 전략과의 조화 필요 : 국가 중장기 발전 비전인 'VISION 2030'은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국가 중장기 성장전략이 담긴 비전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들은 각 부처의 긴밀한 연계와 협조가 없으면 달성하기 곤란할 것임
  - 따라서 이러한 비전은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경제 성장 전략, 선진화 전략 등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전략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고용 시장 개선 미흡

○ 11월 실업률은 취업자수가 2,345만 8,000명으로 전월대비 5,000명이 감소하였으나, 실업자수가 전월보다 2만 1,000명이 감소한 76만 8,000명을 기록함에 따라 10월의 3.3%에서 3.2%로 소폭 하락함

청년실업자 수 34.3 -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34.3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76.8만 명의 44.7%를 차지하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10월의 8.0%에서 7.5%로 하락함  
44.7%를 차지

- 한편 10월의 제조업 취업자수는 413.7만 명 (전체 취업자의 17.6%)으로 1년 전의 419.7만 명보다 (전체 취업자의 18.1%) 6만 명이 감소함

경기 하강으로 청년 실업 문제 등 고용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심화 예상 -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경기마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난이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2006						
			연간	3/4	4/4	1/4	2/4	3/4	10월	11월	
경기	경제성장률	4.7	4.0	4.5(1.6)	5.3(1.6)	6.1(1.2)	5.3(0.8)	4.8(1.1)	-	-	
	실질GNI증가율	3.9	0.5	0.3(0.4)	1.2(1.0)	1.3(-0.6)	2.1(1.4)	<b>2.2(0.0)</b>	-	-	
	수요	소비재판매	-0.8	3.9	4.4	6.8	5.0	5.5	2.2	4.5	-
		설비투자추계	1.4	3.2	1.1	7.0	4.3	4.2	10.0	6.1	-
		건설수주	-3.9	9.5	15.8	-17.9	-9.7	-14.1	36.2	1.5	-
	수출	31.0	12.0	15.4	11.4	10.6	16.9	16.4	10.8	19.8	
공급	산업생산	10.2	6.3	7.1	10.3	12.0	10.9	10.6	4.6	-	
	취업자수(만명)	2,256	2,286	2,303	2,303	2,258	2,341	2,331	2,346	<b>2,346</b>	
	실업률(%)	3.7	3.7	3.6	3.5	3.9	3.4	3.3	3.3	<b>3.2</b>	
	수입	25.5	16.4	21.1	14.6	19.5	20.1	21.4	13.5	12.7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282	166	27	54	-12	7	4	17	-	
	무역수지(억\$)	294	232	49	61	15	50	23	24	41	
물가	소비자물가	3.6	3.2	2.3	2.5	2.3	2.4	2.5	2.1	2.2	
	생활물가	4.9	4.1	3.4	3.4	3.2	3.0	3.3	2.3	2.4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이며,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환율 하락세 다소 안정되면서 주가 급등

○ (해외 금융 시장) 美, 주요 경제 지표 호전으로 금리 소폭 상승

미 주요 경제지표 호전으로 경기둔화 전망에 대한 우려 감소하며 금리는 소폭 상승

- 금리: 미 연준위의 연방기금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제 지표들의 호전으로 경기 둔화 전망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면서 소폭 상승 (국채 10년물 : 4.54 → 4.60%)
- 환율: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본의 내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 등으로 달러화는 유로화와 엔화에 대하여 강세를 보임(\$/€ : 1.3203→1.3144, ¥/\$ : 116.33→117.83)

○ (국내 금융 시장) 환율 하락세가 다소 안정되면서 주가 급등

외국인주식투자자의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주가 대폭 상승

- 주가: 주초반 환율 급락의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1,377p까지 하락하였으나, 주중반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대폭 상승 (1,390.4→1,421.9)
- 금리: 미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외국인의 국채선물 대량 매도 등으로 소폭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4.74→4.81%)
- 환율: 환율 하락에 따른 저가매수세의 유입과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의 대규모 순매수와 수출업체의 달러화 환전 수요 등으로 소폭 상승 (920.3→923.2)

○ (전망) 연말 수출기업의 달러화 환전 수요 등으로 원화 환율 약보합 예상

< 주요 금융 지표 >

		2005			2006				
		2/4	3/4	4/4	1/4	2/4	3/4	12.8.	12.15. <sup>1)</sup>
국내	거래소 주가	1,008.2	1,221.0	1,379.4	1,359.6	1,295.2	1,371.4	1,390.4	1,421.9
	국고채3년(%)	4.02	4.60	5.08	4.93	4.92	4.57	4.74	4.81
	원/달러	1,025.4	1,041.1	1,011.6	971.6	948.9	946.2	920.3	923.2
해외	DOW	10,275	10,569	10,718	11,109	11,150	11,679	12,308	12,417
	Nikkei	11,584	13,574	16,111	17,060	15,505	16,128	16,418	16,829
	미국채10년(%)	3.91	4.32	4.39	4.85	5.14	4.63	4.54	4.60
	일국채10년(%)	1.17	1.48	1.48	1.78	1.93	1.68	1.70	1.63
	달러/유로	1.2108	1.2026	1.1849	1.2118	1.2790	1.2674	1.3203	1.3144
	엔/달러	110.92	113.51	117.75	117.78	114.42	118.18	116.33	117.83
	두바이(\$/배럴)	52.09	56.32	53.19	59.16	67.17	57.33	59.64	57.43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 기준